

행복의 발견 1

# 가슴 속 그 이름, 선생님

글 | 하민희 이미지21 대표

여고시절 꿈을 이룬 친구가 있다. 모교에서 영어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친구는 지금 교무실에서 대입원서를 써주셨던 담임선생님과 책상을 마주하고 후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서 제일 영어를 잘 했던 그 친구는 종종 선생님이 되면 단어숙어 암기비법이며, 문법을 쉽게 익히는 노하우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수하겠노라며 꿈에 부풀 미소를 짓곤 했었다. 열여덟 어린 마음에도 친구의 행복한 미소가 참으로 곱게 느껴졌었나 보다. 삼십여 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에도 여전히 반짝이던 눈동자와 기대에 찬, 신나는 친구의 표정이 아른거리니 말이다.

몇 달 전 한 여고동창으로부터 그 친구의 근황을 들었다.

“개 요즘 생각이 많은가봐. 요새 아이들이 어디 우리랑 같니? 선생 우습게 생각하지, 또박또박 말대꾸하지, 맘고생이 심한 것 같더라. 차라리 집에서 자기애들이나 잘 가르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고민 중이래.” “그래, 그럴 만도 할 거야, 요즘 애들이 보통 까다로워야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야, 흔들리지 마. 냉담하고 치열한 세상일수록 너처럼 열정적인 선생님이 꼭 필요해. 부디 네 따뜻한 꿈이 키워낼 아이들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당부가 터져 나왔다.

## 담임선생님의 ‘목소리’

1980년대 초, 나라도 국민도 어려웠던 시절, 나는 또래보다 한참 조숙한 중학생이었다.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자식 교육에만큼은 아끼지 않았던 그 무렵, 불운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몇 년째 실직 중이셨다. 가뜩이나 넉넉지 않던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나는 결핍 속에서 사춘기를 겪게 되었다. 좋은 학용품은 고사하고 다른 아이들이 두세 권씩 보는 참고서인 전과도 한 권 갖기 어려웠던 나는 무언가를 사달라거나 친구를 부러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눈치 채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을 감추기 위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웃고, 더 활달하게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봄날, 담임선생님께서 부르셨다.

“너, 무용 좋아하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이번 체육대회 날 무용반 발표도 있단다.” 무용반에 추천하셨다는 말이었다. 눈앞이 깜깜해왔다. 무용복을 맞추고 소도구도 사야하고 특별 지도비까지 내야 하는데 집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당시 무용반은 모든 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며칠을 망설이다 연습을 시작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이었다. 한 달쯤 지나 체육대회 때 입으려고 맞춘 무용복을 찾을 날이 다가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

“선생님, 아무래도 발목을 뺀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발표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연히 멀쩡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엄살을 부렸다.

“어찌지? 안무도 다 끝났는데……, 큰일이네.”

무용선생님은 무척 난감해했다. 생각보다 큰일을 냈다는 생각에 이튿날 나는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버렸다.

“많이 아프니?”

해질 무렵, 담임선생님께서 집으로 찾아 오셨다. 손을 꼭 잡으며 눈을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다.

“정말 발목을 다친 거니?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목 깊은 곳에서 뭔가 뜨끈한 것이 울컥 올라왔다. 눈앞이 뿌옇게 변했다. 끝내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 간 담임선생님께서 “이젠 발목이 다 나은 것 같은데?” 하시며 새로 맞춘 무용복을 건네주셨다. 무용복도, 소도구도, 특별 지도비까지 이미 선생님이 내신 후였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뒤로 숨으면 되겠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용감하게 잡아야지. 사소한 이유로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 네 힘으로 어려우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렴. 세상은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란다.”

중학교 2학년 5월, 나는 고운 무용복을 입고 전교생 앞에서 연습했던 춤을 추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냈다는 자랑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커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하고 싶은 일, 하기로 결심한 일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어려움에 부딪치면 최선을 다해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했다. 때로는 책에서 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세상은 노력하는 이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소신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지만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건 마음 깊숙이 들려오는 담임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의 목소리였다.

### ‘존경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

선생님 덕분에 경영컨설턴트로 자리 잡은 나는 한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맡았다. 60여 명이 빼곡히 몰려 듣는 수업이라 늘 의자가 모자랄 지경이었는데 교실 한 가운데 두 자리가 비어있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커피를 쏟은 모양이었다. 옆길러진 커피를 닦고 앉으면 될 텐데 누구도 치우려 들지 않았다. “누가 저 자리 정리해서 앉지”라는 내 말이 무색하게 학생들은 옆 강의실에서 끄끙대며 의자를 끌고 왔다. 나는 가방에서 물휴지를 꺼내어 보란 듯이 커피가 쏟아진 의자를 깨끗이 닦았다. “아쉽구나. 이 자리를 치우고 앉는 학생에게 A+를 주려 했는데…….”

대체 이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까? 함께 공부하는 친구에 대한 예의도, 관심도, 최소한의 정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생이 되면 뭐하고 학점을 따면 뭐할까? 중·고등학교에선 대체 뭘 배운 걸까? 단순히 세대차이로 봐야 할지 세상이 너무 변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과연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해 여름, 오랫동안 버르던 프랑스 여행길에서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답을 얻었다.

촉촉한 아침 안개가 낮게 깔린 이른 아침, 산책길에 나섰던 나는 고소하고 향긋한,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려 어느새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 입구에 자리한 빵집에는 벌써부터 적지 않은 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딱딱한 커피 한 잔과 보드라운 빵 한 입을 상상하며 낮선 이들 틈에 줄 서 있던 내 눈에 색다른 풍경이 들어왔다. 작은 체구에 분홍색 스웨터를 걸친 할머니 한 분이 오자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반겨 맞으며 각자의 앞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다. 순식간에 내 뒷자리까지 오신 그 분께 나 역시 자리를 내어 드렸다. 웬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빵을 받아들고는 뒤돌아보며 눈인사를 건네는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 무슨 이유로 이 동네사람이 하나 같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하는 걸까? 호텔에 돌아와 매니저에

게 물었더니 “아, 디안느 선생님이세요. 평생 이 마을에서 선생님이로 지내신 훌륭한 분이세요.”

‘그랬구나. 연세 드신 선생님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담긴 양보였구나.’ 가슴 한켠이 찢어졌다.

### 그땐 몰랐지

선생은 한자로 ‘먼저 선(先)’에 ‘날 생(生)’을 쓴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지만 글자 그대로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앞서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후배에게 가르쳐주는 이’라는 해석이 더 마음에 든다.

낮선 땅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선생님이라는 말의 깊은 본연을 되짚어보게 했다. 비록 학교 공부가 점수로 환산되어, 진학하고 취업하는 과정의 도구로 인식되면서부터 퇴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생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의미를 배운다. 말이나 지시가 아닌 선생님의 열정과 성의를 통해 학생의 마음은 열리고, 선생님은 열린 마음에 공과 시간을 들여 물을 뿌려가며 영혼을 키운다.

새 교과서를 받으면 종이를 오려 한문 앞에 쓰인 한글에 붙이도록 하셨던 여고시절 국어선생님. 사회에 나가 무난히 한문 명함이며 서류를 읽을 수 있었던 건, 3년 내내 작은 종이가 다닥다닥 붙은 국어책으로 공부했던 덕분이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며 투덜거리던 우리에게 선생님은 “쓸데없어 보이는 귀찮은 일에 언젠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지”라고 하셨다.

화창한 날이면 학교 정원에서 수업을 하자시며 대답을 못하는 친구에게 점심시간에 안뜰 화단에 물주는 벌을 주셨던 생물선생님. 물을 주면서 익힌 꽃의 이름이며 꽃말들, 풀 뽑아 가며 화단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생명의 신비와 가치야말로 잊지 못할 진정한 공부였다는 사실은 철이 들어서야 알게 된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새삼 그리고 소중해질 때마다 우리는 한 뼘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닐까? 나의 고민도 풀렸다. 우리가 선생님들께 받았던 것처럼, 지지 말고 정성을 다해 안전하게 날 수 있을 때까지 날갯짓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듯이 그들의 가슴 한켠에도 우리의 이름이 자리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새교육**

행복의 발견 2

## 선생님 같은 얼굴, 선생님다운 얼굴

글 | 하민희 이미지21 대표



“엄마, 아무래도 나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봐요. 초등학교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무뚝뚝하고, 이야기도 잘 안 들어주시고, 대답도 정성껏 안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훨씬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지 않고 학교가 별로 재미없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아들 녀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했던 이야기다.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천진함이나 학교가 어린이집만큼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는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날만큼 엉뚱하지만 선생님의 미소를 학교생활의 재미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건 나름 일리가 있었다.

### 선생님과 학생은 서로의 거울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 있다. 어떤 움직임을 행할 때나 다른 개체의 특정 움직임을 관찰할 때 활동하는 거울 뉴런은 다른 개체의 행동이나 감정을 감지하고 자신에게도 이러한 반응을 유도한다. 드라마 주인공이 울 때 함께 울게 되거나 주변 분위기에 따라 감정이 변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 부부간에 표정이 닮게 되는 것 역시 거울 뉴런의 영향이다.

하루 종일 서로를 쳐다보며 생활하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서로의 거울이 된다. 선생님이 밝은 표정으로 수업을 하면 듣는 학생들도 덩달아 환한 얼굴이 된다. 선생님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고 씩씩하게 걸으면 학생들에게는 생동감이 돈다. 선생님도 마

찬가지이다.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에 가득 찬 학생들의 표정을 발견하면 더욱 힘이 나서 열심히 수업을 하게 된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비춰가며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이 모두가 거울 뉴런이 작용한 '공감'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모습이야말로 학교 분위기를 이끄는 엔진이 아닐까?

### 권위를 벗어 던지고 교복을 입은 선생님

며칠 전 신문에는 '학생 선생님'의 이야기가 실렸다. 전북 익산군 원광중학교 수석선생님 이길환. 그는 5년째 교복을 입는다. "선생님은 머리도 기르고 교복도 입지 않으면서 왜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강요하냐"는 한 학생의 질문이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춘 참여학습과 인성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이 교사는 한 달 동안 장고를 거쳐 머리를 짧게 자르고 용기를 내어 교복을 입기 시작했다. 항상 의지하고 상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복장을 통해 전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시도였다. 결과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었다. 교복 입은 선생님에게 동질감을 느낀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전과 달리 부담 없이 속내를 털어내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이 먼저 뛰어와 이 교사의 팔짱을 끼고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게 되었다. 대화도 아이들 방식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주고받는다. 교생 실습생이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꾸짖는 일도 있었고, 학부모가 뭐 먹고 그렇게 덩치가 좋은지를 물어보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한다. 마치 침대 같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 속 교복 차림의 이 교사를 보며 외모가 만들어내는 힘을 참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현명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러거스 대학의 다니엘 골먼 교수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리더가 직원들을 잘 웃게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조직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팀원 간의 결속력이 좋아져 한결 나은 성과를 거둔다고 했다. 리더의 웃는 표정 하나가 열 마디의 말보다 함축적이고 강력하게 우호적인 감정을 전하기 때문이다.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생님의 밝고 활기찬 표정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힘을 발휘한다. 빠듯한 교과과정과 학업에 몰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눈빛과 생동감 있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내!", "그래, 잘 하고 있

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선생님들이 교복을 입을 수는 없다. 하지만 거리감을 조성하는 지나친 권위는 언제나 벗어 던질 수 있다. 대신 자주 웃어주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상냥한 표정을 입으면 된다.

### 나를 지켜주는 밝은 표정 훈련법

언젠가 감정코칭세미나에서 ‘억지로 웃는 것은 일종의 감정노동’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웃고 싶지 않는데 의무감 때문에 웃어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고된 노동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점점 웃는 일이 줄어드는 세상을 살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연결’ 상태를 만들어 오롯한 혼자만의 여유나 회복의 기회를 방해한다. 고도로 발달된 서비스 사회에서는 누구나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여러 가지 기준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는 팽팽한 긴장감 있는 일상은 웃음을 잃게 한다.

하지만 그 모든, 날이 선 일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밝은 표정이고 미소’이다. 어느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키기 위해 반드시 웃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웃는 사람과 웃는 모습을 보는 사람 모두에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한다. 흔히 보살핌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여유로운 마음과 너그러운 태도를 만들며 스트레스로 인해 떨어지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웃어야 할 이유가 많은 만큼 웃지 못할 이유도 많다. 더욱이 교과과정의 방대한 분량에 밀려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안심하고 나눌 수 없는 요즘의 교육현장에서 교사에게 늘 환하게 웃으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웃는 습관을 만드는 두 가지 훈련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훈련법은 매사 긍정적인 면부터 보고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데서 시작된다. 시계추처럼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은 자칫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눈을 만들어내기 쉽다.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고, 말을 할 때도 기쁜 소식부터

말한다. 그리고 처음 만났거나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장점 세 가지를 찾아내도록 해보자. 예를 들어 '영은이는 피부가 곱고 목소리가 경쾌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거나 '정 선생은 튼튼하고 눈길이 다정하며 예의가 바르다'처럼 다른 이들의 장점들을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훈련이다. 대여섯 명만 해 보면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장점이 한순간 보이기 시작한다. 주변인에 대한 시선이 너그럽고 긍정적으로 바뀌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표정 또한 밝아진다. 단시간에 자연스럽게 온화한 마음과 표정을 만드는 데 용이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눈인사 훈련법이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상대를 향해 마음속으로 '하이!'하는 인사말을 건넨다. 이 방법은 길을 가며 마주치는 무수한 낯선 이들을 상대로 연습하기 좋다. '하이!'하고 인사를 읊조리는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눈에 표정이 실리며 미소를 짓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환한 표정 훈련법은 내가 지치거나 우울한 느낌이 들 때마다 꺼내 드는 요술봉이다. 웃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닌 스스로의 기분을 경쾌하고 여유롭게 만들어 웃게 되는 셀프힐링법이기도 하다.

### 선생님 같은 표정

“혹시 선생님이세요?”

며칠 전 방한 점퍼를 사기 위해 들린 매장에서 판매사원이 물었다.

“왜 그렇게 보셨어요?”

“말씨랑 표정이 참 좋으셔서요. 꼭 선생님 같으세요.”

문득 여태 풀어 놓은 나의 이야기가 공연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운 말씨와 좋은 표정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을 떠올리고 그 연상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점점 까다롭고 예민해지는 아이들과 만만치 않은 교육환경에 떠밀려 선생님들이 활기와 밝음을 놓쳐버릴까 염려스럽다.

교사의 얼굴은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고, 영혼을 키워가는 정원이기에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다운 표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세교육**



## 우리 선생님은 호모루덴스

글 | 하민희 이미지21 대표

“엄마, 우리 수학 선생님, 완전 사진작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 좀 보세요. 완전 짱!” 아들 녀석이 들뜬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수학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보여준다. 요즘 들어 아들은 부쩍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뒤늦게 사진공부를 하는 제 어미 덕에 사진전시회나 사진책을 자주 보다보니 안목이 생긴 탓이기도 하고 엄마의 관심사에 동참하려는 나름의 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 정말 사진 잘 찍으시네. 그런데 사진이 멋있다는 거니? 사진 찍으시는 선생님이 멋있다는 거니?” “둘 다죠. 수학과 사진, 선생님과 사진가,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탄탄한 취미생활을 가진 수학 선생님을 존경 반 부러움 반으로 칭찬하는 아들을 보며 새삼 통섭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절감한다. 이질적인 것을 즐기며 그것을 통해 차별화되는, 고유한 자기세계를 가진 사람에 대한 동경과 선망.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고도의 선진사회에 진입해 버린 게 아닌가 싶다.

###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가'

3월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하는 달이다. 얼음이 녹고 싹이 돋고 나무에 물이 오르듯 입학, 개학, 개강, 승진 등 우리네 일상에도 새로운 장을 여는 일들이 가득하다.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건 새로운 만남을 전제로 한다. 한 해의 순항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인연을 가꾸어가는 출발선인 3월은 그런 의미에서 설레고 분주하다.

얼마 전 친하게 지내는 대학교수 한 분을 만났다. “나도 이제 늙어 가나봐. 개강이 설레지 않네. 애들 얼굴도 똑같아 보이고…… 뭔가 신선한 게 필요해. 초심을 불러 일으킬 풋풋한 일종의 자극, 뭐 없을까?” 20여 년을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더 없이 교수답게, 읽고 쓰고 발표하고 가르치는 데 충실하셨던 분이셨다. 입버릇처럼 세상

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학자라고 하시던, 매사에 긍정적인 분이셨기에 그 짧은 푸념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차가운 날씨가 풀린다는 예보를 듣고는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다. “똑딱이 카메라 있으시죠? 목도리, 모자 챙기시고 덕수궁 입구에서 봐요. 모처럼 같이 나들이 하시자고요.” 겨우내 방 안에서 쉬고 있던 육중한 카메라 가방을 들춰 맨 나와 조그만 디지털카메라를 달랑 들고 나오신 교수님과 만나질 궁 데이트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기 5년만인가 6년만인가? 많이 달라졌네.”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덕수궁을 반 바퀴쯤 돌았을 때 나는 교수님의 일상을 거의 파악할 수 있었다. 여덟시 연구실 출근, 강의, 저녁 약속 있을 때 일곱시 퇴근, 그 외엔 아홉시 퇴근, 한 달에 한 번 골프, 주말엔 집에서 휴식. 꿈을 만한 취미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한국인의 생활. 교수님이 내게 물었다. “대충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냐?”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TV시청(77.8%)이고 그 다음이 산책(31.2%), 낮잠(23.6%), 인터넷(23.5%) 순이다. 외부활동이 적은 이유는 ‘여가’에 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문제는 ‘여가’가 더 이상 그저 쉬는 혹은 남는 시간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시간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육체노동의 시대에는 몸을 재충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겠으나 나날이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는 현대인은 스마트 기기와 정보를 사용하는 호모인텔리쿠스이다. 오죽하면 저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돈 탭스콧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우리 세대를 일컬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세대’라고 칭했을까? 지금 우리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재충전이 본질인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그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여기 많이 바뀐 거지? 옛날에도 이렇게 좋았었나?” 덕수궁 길을 걸으며 교수님

의 표정이 환해지기 시작할 무렵, 단아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다. 백발에 쨍이 달린 모자를 쓰고 곱게 분단장까지 하신 할머니는 15년 만에 맘먹고 다시 왔으며 살포시 웃음을 지으며 이왕이면 예쁘게 찍어달라셨다. 그리고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며 꼭 보내줘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셨다. 할머니가 저 멀리 가실 때까지 뒤돌아보고 서 있던 교수님이 “재밌는데…… 이거 참 괜찮은데!”라고 중얼거리셨다.

3시간가량의 덕수궁 나들이를 마칠 무렵 교수님은 내게 “오늘 고마웠어. 참, 자네 카메라는 얼마나 해?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나?”라고 물으셨다.

성공이었다. 교수님이 고민하던 ‘초심을 불러일으킬 뜻뜻한 자극’을 찾는 일에 성공했다. 덕수궁을 들어설 때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분의 발걸음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는 걸음은 누가 봐도 훨씬 가뿐하고 젊어보였다.

요즘 교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새로 장만한 DSLR 카메라다. 작동하다 막히면 수시로 전화를 하신다. 이제 강의를 위한 사진 자료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다. 무엇보다 활기차고 경쾌해진 교수님의 목소리가 좋다. 대중 흘러보냈던 ‘여가’가 이제는 ‘사진찍기’ 놀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력으로 거듭난 것이다.

### 놀이하는 인간의 가치

‘놀이의 인간, 호모 루덴스(homo ludens)’를 쓴 네덜란드 문화사학자 J. 하위징아가 새삼 각광을 받고 있다. 근대사회 노동지상주의에 가려졌던 놀이의 의미를 재평가했던 그에 의하면,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써 경제활동은 인간을 경쟁시키고 적대적으로 만든다. 그렇지만 경제적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하는 자발적 행동인 놀이는 명예를 놓고 경쟁을 한다. 아무리 피가도 마르지 않고, 나눌수록 즐거움이 커진다. 놀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존경, 협력, 명예라는 가치를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놀이를 구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 스스로 놀이를 하는 행위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본질적인 인간이 되어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다.

여가와 놀이를 통한 통섭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사회의 의식은 한 단계 진보한 듯싶다.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이른바 '샤'의 세계에서조차 여가와 놀이를 통해 자신만의 창조적이고 고유한 방식을 보여주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닐까?

강원도 평창의 산골마을 고길리의 보건소에는 겨울 내내 '춤바람'이 불고 있다. 강원도 특유의 추운 날씨로 인해 겨울철 농한기에 운동부족으로 건강이 취약해지기 쉬운 마을주민을 위해 여성 보건소장은 춤교실을 열었다. 직접 음악을 고르고 안무도 짜서 율동으로 만들어 가르친다. 기왕에 춤추러 다 같이 모인 김에 자연스럽게 혈압과 혈당도 체크하고 금연, 절주 등 질병예방이나 관리에 대한 보건교육까지 실시한다. 춤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지극히 호모루덴스적인 보건소장 덕분에 고길리 주민들이 행복해졌다.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사진을 찍고 학생들과 함께 쓴 시를 모아 시집을 낸 선생님, 영화를 통해 세계사와 토론을 가르치거나 국토순례여행을 통해 체험하는 국사수업법을 소개하는 선생님도 계신다. 모두 여가와 놀이로 호모루덴스의 진면목을 보여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아는 분들이다.

100세 시대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행복하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만드는 자기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이 요구된다. 자신을 다이내믹하게 재충전시킬 줄 아는 것, 진정한 창의의 시작이다. 십대 아들이 호모루덴스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새교육**



**하민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패널, 사단법인 브랜드경영협회 이사, MBC 브랜드 자문위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이미지21, (주)와우이미지, 볼갤러리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위미니지먼트로 경영하라>, <안테바신의 도시, 바라나시> 등이 있다.

#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본은?

글 | 하민희 이미지21 대표

“우리 동네에 야경꾼이 있었어. 밤늦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돈 그는 언제나 큰소리로 ‘알 이즈 웰(인도 식 영어 Aal Izz Well, 모두 다 잘 될 거야라는 뜻)’이라고 외쳤어. 동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알게 된 거야. 그 야경꾼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겁먹고 속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속일 필요가 있지.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알 이즈 웰’ 하고 외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속아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

인도 영화 ‘세 얼간이’의 주인공 란초가 하는 이야기이다. 고3 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본 이 영화는 보기 드문 수작이다. 인도 최고의 천재들만 다니는 공대 ICE 입학생 란초는 치열한 경쟁과 주입식 교육 속에서도 언제나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다. 기발한 생각으로 성적에 스트레스 받고 주눅 들어 있던 단짝 친구 둘의 인생을 열어 준 그는, 사실 주인집 아들의 이름으로 위장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천민 출신의 천재였다. ‘세 얼간이’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 우리 교육 현장에 절실한 ‘긍정심리자본’

최근 서양 경영학계에서는 사람의 긍정적인 심리를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뜻하는데 개인적인 측면보다 개개인이 모인 조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그 분위기나 성과에 있어 눈에 띄는 만큼 앞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직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화 '세 열간이'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두둑한 란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책 없이 방황하는 두 친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긍정심리자본을 크게 네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도전적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 자신감, 둘째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낙관주의, 셋째는 목표를 향해 인내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경로를 재설정해가는 희망, 그리고 넷째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뛰어 넘는 의지복원력을 꼽았다.

영화 '세 열간이'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치열한 경쟁과 결과지향적인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고2예요. 올라가도 힘든 마당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어머니, 일단 성적부터 신경 써 주세요. 아시죠? 인(in) 서울 하지 못하면 세상 살기 피곤해집니다.”

고2 딸을 가진 친구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소연했다. 친구는 진짜 속상했던 건 딸의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상담시간 내내 성적만 강조하는 선생님 때문이었다고 했다.

“우리 딸은 상냥하고 따뜻해. 공부는 잘 못해도 어떤 친구와도 잘 지내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아는 착한 아이거든. 나는 우리 딸이 자랑스러운데 담임선생님 눈에는 그런 건 보이지도 않나 봐.”

친구의 안타까움에 100% 동감되는 것은 대입의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와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현실 앞에 무기력한 부모의 입장 모두를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만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아이와 부모를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 잊지 못할 친구의 100미터 달리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우리 반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에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다. 움직임이 그리 편치 않았을 텐데도 그 친구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청소도 열심히 했다. 학교 활동 어느 것 하나 투덜거리지 않고 빠지지 않았다. 어린 내가 보기에 불편한 다리였는데 그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부지런히 아이들과 뛰어놀았다.

5월 운동회였다. 전교생이 100미터를 뛰는 순서가 있었다. 열 명씩 한 조로 뛰어서 1등을 한 조는 공책이며 연필 같은 학용품을 받았다. 당시에는 한 학급이 60여 명이 넘었고 학년 당 열서너 반이 있었으니 그 순서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다.

“넌 몸도 불편한데 빠지렴.”

진행을 맡은 옆 반 선생님께서 내 뒷줄에 선 그 친구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저 뛸 수 있어요.”

그 친구는 별장계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 빠져도 뭐라고 할 사람 없다. 어서 나오렴.”

늘 웃던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옆 반 선생님 앞으로 다가 말씀하셨다.

“한번 뛰어 볼래? 그래, 좀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거야. 꼭 끝까지 뛰어야 한다.”

그 친구와 같은 줄의 아이들이 다 들어오고 한참이 지났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뛰고 있었다. 온 운동장에 모인 이들이 그 친구를 바라봤고 얼굴이 빨개진 친구가 100미터를 다 뛰어 들어오자 담임선생님은 뛰어가서 그 친구를 얼싸 안았다. 전 교생이 한동안 박수를 쳤다.

삼십 년이 넘도록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 있던 기억 때문이었을까? 처음 나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친구의 소식을 물었다.

“아, 그 친구, 지금 모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어. 다리도 수술을 해서 예전처럼 많이 불편하지 않고. 완전 인간 승리지. 그 친구 좋은 일도 많이 한대. 동창회에 꼬박꼬박 나왔는데 오늘은 학회가 있어 못 나왔나 봐.”

문득 눈치 보지 않고 그 친구의 100미터 달리기를 기다려주셨던 담임선생님이 떠올랐다. 어쩌면 오늘날 그 친구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됐다.

참고 믿고 기다려주기, 잘 될 거라고 용기주고 격려해주기, 좌절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주기. 말로 하긴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들이 오늘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새삼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긍정심리 자본이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물질과 보살핌이 충분한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외로워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생각하려 들지 않는 텅 빈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무기력에 빠져 모든 것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일상의 자잘한 분노들을 속으로 삭히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터트리기도 한다. 모두 마음의 힘이 없거나 극히 약해진 탓이다.

이젠 선생님이 나설 때이다. 아이들의 약해진 마음을 긍정적이고 강인하게 만들고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내며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다. 믿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잘 될 거라 격려하며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어 주자.

오늘 선생님이 키워 준 긍정심리자본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새교육**



**하민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패널, 사단법인 브랜드경영협회 이사, MBC 브랜드 자문위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이미지21, (주)와우이미지, 볼갤러리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위미니지먼트로 경영하라>, <안테바신의 도시, 바라나시> 등이 있다.



행복의 발견 5

# 생각을 담은 마음 그릇, 말

글 | 하민희 이미지21 대표



“세상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요즘 애들 우리말 안 쓰나봐. 세대차이가 아니라 언어차이야.”  
우연히 하교하는 중학생들의 대화를 듣게 된 친구는 꽤나 놀란 모양이었다. ‘빙신, 갑치고, 뺨쳐서’ 같이 뜻도 모르는 욕  
설과 비어가 난무하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글쎄, 외모로는 그냥 보통 애들이야. 특별히 문제  
가 있어보이지도 않던데…… 그렇게 욕하는 거 개네 부모도 알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모여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속이 울렁거린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같이 곱지 않을 뿐더러 사뭇 공격적이다. 우리말 실력이 그리 멀리지 않는 나조차 해석이 필요할 지경이다. 낯선데다 거칠기 짝이 없다. 대체 이 말은 어느 별의 언어일까?

청소년기는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인지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염려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요즘 우리 아이들의 언어습관은 이미 선을 한참 넘었다.

지난해 교과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사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하고 있다. 한 마디 걸러 한 번씩 욕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6만 건에 달하는 유형별 피해 건수 중에 ‘심한 욕설’이 19만 건(33.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했다. 욕설은 이제 단순히 나쁜 언어 습관이 아니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폭력으로 자리 잡았다.

### 요즘 아이들 일상에 채워진 비속어와 욕설

더 심각한 것은 비속어, 욕설 사용이 일부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 1등을 하는 자신의 딸을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김 부장. 예쁜데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요새말로 ‘엄친딸’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며 자랑하던 김 부장이 어느 날 무거운 목소리로 고민을 토로했다.

며칠 전 딸과 대화를 했단다. 딸이 다니는 학원에 이웃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아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더니 잠시 후에 밥을 먹다 말고 “○○년, 이번 모의고사에서 아주 잘야 마셔버릴 거야”라고 혼잣말을 하며 이를 ‘오드득’ 갈더라. 나무랄 데 없이 착하고 곱게 잘 키운 모범생 딸이 그렇게 험악한 욕을 하는 걸 본 아빠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김 부장은 지나친 경쟁 때문에 딸의 정신상태가 이상해진 건 아닌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흥한 욕을 하는 거야?”

조심스레 묻는 아빠에게 딸이 픽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야말로 왜 그래? 욕도 아닌 걸 가지고. 요즘 애들 다 이쯤은 하고 살아.”

문제는 또래 습관이다. 친구가 비속어를 쓰고 욕을 하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따라하는 게 대개의 청소년이다. 욕을 하는 것이 왜 나쁜지, 자기가 입에 담은 말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호기심 반 장난 반 덩달아 어울린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고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친 말을 쓸수록 주도권을 잡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용된 비속어와 욕설은 다른 이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켜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 언어를 통해 사고하는 인간

세계적인 언어학자 칼 야스퍼스(Karl Theodor Jaspers)는 “사람은 언어를

통해 비로소 사고한다”고 주장했다. 구소련의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 역시 “언어와 사고는 서로의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는 깊은 연계성을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출발은 단순한 재미와 기분풀이로 시작되었을망정 비속어, 은어, 욕설 등의 사용은 생각과 행동을 서서히 변화시킨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욕을 사용하는 이유로 ‘평소 말투라서, 습관적으로’ 혹은 ‘기분이 나빠서’를 꼽는다. 자신들의 공격적인 언어가 다른 이에게 폭력이 된다는 사실조차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는 욕설을 SNS에 실어 보내고 힙쓸러서 혹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일에도 동참하게 된다. 이런 행동이 누군가의 심장을 도려내는 막말이 되고 인터넷의 악성댓글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언어폭력의 사용 빈도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또래집단이라는 점이다.

“우리 학교엔 욕하는 애들이 없어요. 말이 거칠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없

고…… 선생님들도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으세요. 서로 존중해서 신사적으로 대하는, 한마디로 품격 있는 분위기인 거죠.”

학교와 학우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한 아들의 이야기다. 어디서 비롯됐건 바람직한 언어문화가 형성돼 학교 분위기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학생이 먼저 알아차린다.

### 언어습관 개선 노력들

“애들이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끝마다 짜증나, 미쳐 같은 부정적인 말로 투덜거리고. 일단 재밌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죠. 먼저, 짜증나 대신 자장면이라고 바꿔 말하라고 했어요. 친구 자장면을 제일 많이 세어 오는 아이에게 자장면을 사주겠다고 했죠.”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의 경험담이다. ‘짜증나’를 ‘자장면’으로, ‘오나’를 ‘종달새’로, ‘오발’을 ‘살랑’으로 바꿔 부르게 했다. 그리고는 그 욕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처음에는 말 바꾸기가 재미있어서 그저 해헤거리던 아이들의 입에서 두어 달 만에 욕이 사라졌다고 했다.

비록 지금은 욕을 하고 있지만 그 폐해와 심

각성을 깨닫게 되면 언어습관을 바꿀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언어습관 개선에 나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연천 전곡고등학교는 학생끼리 '비밀 짝꿍'을 정해 서로의 언어습관을 기록한 뒤 몰래 전달했다.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몰랐는데 친구가 적어준 기록을 보며 자신의 잘못된 언어습관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수원 안용중학교 역시 학생들에게 '욕사전'을 직접 제작하게 함으로써 욕의 어원과 뜻을 알게 해 욕을 삼가도록 만들었다.

제주 월랑초등학교에서는 자주 쓰는 욕설을 종이에 써서 버리는 '욕설 휴지통'을 설치하는 등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욕설의 심각성을 발견해 스스로 언어

습관을 고치고 있다.

아예 언어습관 개선 동아리를 만든 학교도 있다. 서울 경희여자중학교의 동아리 '너나들이'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의 개사 활동을 통해 무심코 흥얼거리는 가요 가사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찾아 변환해 부르다가 하면 그래도 욕을 하는 학생에 대해 별점이나 꾸지람 대신 시를 외우게 하는 방법까지 도입했다. 학생들 스스로가 이런 개선 방법을 찾아내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다.

흔히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品格)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세 개의 입구(口)로 이뤄진 품(品)자는 사람의 격에 있어 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말은 생각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맑은 빛이 도는 단단하고 고운 그릇을 안겨주자. 그 그릇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니. **세교육**



**하민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패널, 사단법인 브랜드경영협회 이사, MBC 브랜드 자문위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이미지21, (주)와우이미지, 볼갤러리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위미니지먼트로 경영하라>, <안테바신의 도시, 바라나시> 등이 있다.

행복의 발견 6

# 선생님, 미래를 키워내는 진정한 꿈지기

글 | 하민희 이미지21 대표

“엄마, 한 시간 정도 인터뷰 좀 해 주세요.”

“무슨 인터뷰?”

“직업 탐구 과제인데요, 주변인의 직업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엄마가 경영컨설턴트시니까 하시는 일을 질문지에 따라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들은 스무 개 정도의 질문이 빼곡히 적힌 직업탐구 인터뷰지를 들고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취재 나온 기자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경영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일을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직업탐구 인터뷰는 꼬박 세 시간 가까이 걸려 마무리되었다. 연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부지런히 받아적던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색을 하고는 악수를 청했다. “엄마가 이렇게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완전 대단하세요. 멋지십니다. 올 엄마, 인정!” 하며 웃었다. 어떤 직업에 대해 몇 시간씩 자세히 들어보거나 알아본 적이 없었던 아들에게 경영컨설턴트 엄마는 한순간 영웅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살면서 몇 번 돌아오지 않을, 아들 앞에서 맘껏 으쓱거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 고래는 바다에서 키워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회와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해 13~18세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장래희망 직업’ 조사에 의하면 1위가 교사, 근소한 차이로 2위는 연예인, 공무원이 3위를 차지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요리사, 디자이너, 사업가, 엔지니어, 간호사, 의사, IT전문가 등이 상위권 희망 직업들이다. 연예인과 요리사, IT전문가만 제외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로부터 권유받았던 직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석 달마다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요즘, 우리 자녀의 꿈이, 우리가 십대였던 삼십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월이 가도 여전히 사자 직종은 꿈히는구나' 또는 '요즘은 십대도 현실적이구나' 혹은 '우리 아이들은 역시 부모 말을 잘 따른다니까' 식의 단편적인 판단은 곤란하다.

개발도상국에서 IT선진국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가전제품을 만들고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스타와 엔터테인먼트 스타가 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우상이 된 선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 중년들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국력과 국격을 갖춘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보다 높고 큰 세상을 날 수 있다. 큰 꿈과 탄탄한 심신만 만들어주면 지구촌의 늠름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열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삼십년 전과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길 원하고 있다. 혹시 우리가 고래를 어항 속에서 키우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은 꿈지기입니까, 매니저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한 건 꿈

지기다. 진취적인 사고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도록 돕고 격려해 줄 든든한 꿈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부모님부터 학교 선생님까지 '꿈'보다는 '학력' 키우기에 집중하며 꿈지기 대신 매니저로 나선다. 심지어 본인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경우까지 있다.

두해 전, 20대 중반의 한 젊은이가 상담을 청했다. 초·중·고 내내 전교 수석을 했다는 그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명문 여대 영문과에 진학했고 역시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석사까지 마쳤다.

“정말 심각한 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예요. 사실, 자신도 없고요. 저는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어요.”

그는 대학원 졸업 후 스트레스로 20kg이 넘게 살이 쪼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 부모님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모범생 딸이었지만 자신의 꿈과 의지를 키우지 못한 채 행복하지도 성숙

하지도 않은 청년이 되어버렸다. 너무 늦게 자기 속의 목소리를 듣게 된 그가 안쓰러워 한동안 그저 어깨만 두드려주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난다.

### 자유학기제, 진화를 위한 출발

새 정부가 자유학기제 도입을 선언했다. ‘꿈과 끼’를 찾아주고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그동안의 진로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뭐가 다르냐는 투덜거림이 나오고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올해 중1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변화란 저항이라는 그림자를 달고 다니기 마련이고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인지라 더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하게 몸을 돌려 다시 출발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친구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목공을 하고 싶은데 학교생활은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을 막는다고 지난 학기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미술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혼자서 유명한 목수도 찾아다니고…… 무척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어요.”

십여 년째 나의 멘토이신 미술평론가 선

생님의 둘째 아들 이야기다. 언제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그분의 교육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생 아들의 홈스쿨링이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학교 이외의 교육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보통 학부모인 내게 그 파격적인 결정은 부모로서 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염려되지지는 않으세요?”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아이입니다. 잘할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다. 홈스쿨링 1년 만에 둘째 아들은 훌륭한 목수가 되려면 일단 미대를 가야겠다고 단과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수능준비를 했고 2년 만에 형이 다니고 있는 미대에 거뜰히 입학했다.

“저는 모범생인 큰 애가 더 염려스럽습니다. 대학이 별 재미가 없는지 그저 남들 하는 만큼만 해요. 둘째는 거의 작업실에서 삽니다. 폭 빠져서 공부하고 있어요. 둘째 걱정은 하나도 안 됩니다.”

선생님의 둘째 아들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새삼 돌아보게 해준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일을 하는 분들께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에서 직접 배워보기도 하면서 머리가 아닌 몸과 가슴으

로 하고 싶은 일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이 아닐까?

한 학기든 1년이든, 중1이든 중3이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들이 점수와 경쟁에 휘둘리며 아무 생각 없이 오래 달리기만 하고 있는 학업이라는 트랙에서 잠시 내려와 재미있게 사회와 사람들의 일에 관해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아직 때 묻지 않은 눈이기에 어떤 일이든 나름의 가치를 배우고 발전적인 생각의 틀을 키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는 기회라는 점이다.

자유학기제의 적절한 시기와 기간을 찾아내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 학업진행이 중단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지를 등의 각종 염려를 일단 접어두자. 바른 눈과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의 구성원으

로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자.

###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멘토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땅에는 멘토 열풍이 뜨거웠다. 꿈과 치유와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멘토들에게 열광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며 실얼음판을 걷는 조바심을 느꼈던 건 나 뿐만은 아니었으리라. 성적과 학력, 획일화된 기준과 스펙에 밀려 사회에서 미처 자기 자리를 가늠해 보지 못한 청년들이 멘토라는 이름의 꿈지기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어디든 대학만 가라’, ‘소자만 달면 어쨌든 대접받고 산다’, ‘외국 유학이 출세 보증서다’ 같은 막연하고 구시대적인 조언들을 이제 추방하자. 대한민국의 교육은 한 단계 진화 중이다.

부모이고 선생인 우리야말로 최고의 멘토이자 꿈지기가 될 수 있다. 선생은 과목을 가르치는 이가 아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며 미래를 키워내는 진정한 꿈지기이다. **세교육**



**하민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패널, 사단법인 브랜드경영협회 이사, MBC 브랜드 자문위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이미지21, (주)와우이미지, 불꽃갤러리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위미니지먼트로 경영하라>, <안테바신의 도시, 바라나시> 등이 있다.



## 성숙한 내리사랑이 낳는 치사랑

글 | 하민희 이미지21 대표

“저는 일찍 장가갈까 봐요. 이다음에 적어도 아이를 셋은 낳을 건데 엄마가 많이 할머니 되기 전에 낳아서 키워주셔야 하잖아요? 저는 애들을 엄마가 저를 키운 대로 키울 거예요. 제가 봐도 전 꽤 관찮게 큰 것 같거든요.”

세상에! 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아들이 고3이 되면서 터무니없는 농담으로 자주 나를 당황시킨다. 엄마한테 객쩍은 소리를 하는 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겠거니 하면서 백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칭찬 반 애교 반 섞어가며 기분 나쁘지 않게 싱거운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수가 한참 늘었다.

“어머, 아들! 내가 왜 자네 애들을 키워줘야 하니? 뉘을 다 했으면, 엄마도 엄마 인생 즐겨야지.” “원래 격대교육이 더 바람직하다잖아요. 엄마도 더 행복하실 걸요?”

천연덕스럽게 웃는 아들의 장난스런 표정에 말문이 막힌다.

부모와 자식관계에 관해 잘 알려진 두 가지 속담이 있다. 하나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다. 심리학자들은 자식의 고집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큰 부모의 사랑을 꼽는다.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 역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뜻한다. 언제나 부모는 주고, 베풀고, 이해하는 입장이고 자녀는 받고, 누리고, 이해받는 입장이다. 때문에 가진 부모에게 자식이 바라는 건 흠이 되지 않지만 가진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부모는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낀다. 자녀의 수가 줄면서 이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사랑은 더욱 심해지는 듯하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가구 1자녀 정부정책을 따르는 중국에서 자녀는 ‘소황제’라 불린다. 지나치게 받는 사랑에만 익숙한 중국의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 앞에서 예사로 다리를 꼬고 앉아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부모 형편 고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백만 가지 요구를 한다. 서양사회치고는 꽤나 엄격한 독일 역시 자

녀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갖가지 어린이 놀이시장부터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관련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증가 추세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 '자식=호사(豪奢)'가인 셈이다.

**내리사랑이 있으면 치사랑도 있어야**

며칠 전, 고등학교에서 '미래형 인재와 진로지도'라는 주제로 학부모 대상 강의를 했다. 강의 전에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과 잠시 차를 나누다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은 학생들 심부름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뭘 하나 시키면 꼭 뭘 하나 요구합니다. 심부름을 했으니 상점을 달라든가 선물을 달라는 식이지요. 좋게 말해 비즈니스적이고 나쁘게 말해 지나친 개인주의랄까,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관계의 황금률은 예나 지금이나 주고 나서 받는 것(Give&Take)이다. 우선 친절을 베풀어야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먼저 역량을 보여줘야 임금 인상이든 승진이든 가능해진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탄탄한 관계가 구축된다.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대가부터 따지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픈 마음도, 믿음도 생기지 않기 마련이다.

강당을우고 있는 100여 명이 넘는 학부모들에게 강의하면서 아이를 사회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무엇보다 우선 사회성을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재정립도 부탁했다. 일방적인 내리사랑으로 세상이 온통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 말고, 귀한 자식일수록 험한 일도 시키고 어려움도 겪게 하면서 부모의 입장과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치사랑을 가르쳐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적지 않은 엄마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하는 회한의 눈빛이 반, '정말 그래야 하나요' 하는 의문의 눈빛이 반이었다.

문득 내리사랑과 치사랑은 일방적인 사랑과 상호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루는 적정한 거리감과 존중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한국의 젊은이가 아니라 한국의 엄마들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하는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다. “요즘 엄마들은 거의 연예인 로드매니저 수

준입니다. 심지어 연수 중에 전화를 걸어 못 먹는 음식이며 알레르기며 견디기 힘든 환경까지 죄다 협조를 요청합니다. 20대 중반인 자녀를 마치 어린애처럼 챙기면서 매사 관여하려 듭니다. 그런 행동은 절대로 자녀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계속 자녀의 주변을 맴도는 헬리콥터 맘이 생각보다 많은 모양이다. 우리 아이에게 최고와 최상의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새끼를 품은 동물도 추위와 더위, 배고픔에 어미가 대신 죽는 걸 보면 내리사랑이야말로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면서 아름다운 본능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자식에 대한 원초적인 사랑을 넘어선 더 큰 지혜로운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 아닐까?

### 성숙한 내리사랑의 체험은 치사랑의 토대

사람은 보통 2~4살 사이에 처음으로 부모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임을 발견하고 이때부터 서서히 정서적 분리가 일어난다고 한다. 처음엔 의존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가지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빠른 성장만큼 독립욕구 또한 강해진다. 극단적인 반항이나 부모의 충고, 가치관을 거부하고 이유 없이 부모

에게 화를 내는 등 일련의 부정적인 행동들도 성장과정상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자녀에게 최선의 내리사랑은 자녀가 굶는 나름의 경계선과 한계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이다. 때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만큼 서운한 언행도 하겠지만 너그러운 눈과 믿음으로 지켜봐줘야 한다. 인격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거스른다고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섭섭해 하는 것은 적정한 거리 조절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오히려 자녀의 생각이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을 해주면서 너무 멀리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너무 멀지도, 다 들여다보일 만큼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텀블러(Tumblr)’를 야후에 매각해 26세에 일약 억만장자가 된 데이비드 카프의 어머니 바버라 에이커먼은 성숙한 내리사랑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교사인 바버라는 14세 때 컴퓨터 중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아들을 염려하거나 꾸짖지 않았다. 아들의 열

정적인 몰입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는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도록 도왔고 덕분에 카프는 창업 6년 만에 이용자 1억 1700만 명을 확보한 SNS를 일군 세계적인 청년 창업자가 됐다.

성숙한 내리사랑의 체험은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 치사랑의 토대가 된다. 결코 이론이나 훈련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속성상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품게 되는 치사랑은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의 성숙한 내리사랑의 체험을 통해 배우고 얻게 되는 공감이나 공유에 가깝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사회에서 세대 간의 존중과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백세 시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돌아보면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 관계이며 함께 세상을 꾸러기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이기도 하다.

메릴랜드대 에릭 우슬러너 교수는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같은 나라에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차이도 근본적으로 상호신뢰에 기인하더라는 연구도 있다. 신뢰는 존중 위에 피는 꽃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르지 않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심적·물적 내리사랑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관계를 오염시킬 뿐이다.

고3인 아들 녀석이 벌써부터 자기 애들을 키워달라는 건 다소 뻔뻔하고 밍살스럽지만, 자기가 봐도 엄마가 잘 키워달라는 칭찬만큼은 정말 고맙다. 십칠년이 넘도록 어지간한 건 참고 가능한 잔소리를 삼갔던 엄마의 노력을 알아준 것 같아서다. **세고육**



**허민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패널, 사단법인 브랜드경영협회 이사, MBC 브랜드 자문위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이미지21, (주)와우이미지, 볼갤러리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위미니먼트로 경영하라>, <안테바신의 도시, 바라나시> 등이 있다.